

물소리 하나가 내 오만한 삶의 자리를 쓸고 갑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모든 것에 경배하며 살아야겠습니다.

- 성전스님 -

이비인후과 김진엽 교수, 수면내시경 자동 판독 AI 연구 국제학술지 게재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이비인후과 김진엽 교수가 공동 제1저자로 참여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인공지능 연구가 권위있는 국제학술지 npj Digital Medicine(IF 15.1, JCR 상위 0.5%)에 지난 4월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약물유도 상기도 수면내시경(DISE) 영상을 딥러닝으로 자동 판독하는 AI 모델 개발에 관한 것이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상기도가 반복적으로 막혀 심혈관질환·인지기능 저하 등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수면내시경은 기도 폐쇄 부위를 확인하는 핵심 검사다. 그러나 판독 결과가 의료진의 경험에 따라 달라지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국내 5개 대학병원에서 수집한 1,904명의 수면내시경 영상으로 기도 폐쇄 부위와 양상을 자동 분석하는 AI 모델을 구축했다. 모델은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외부 병원 데이터 검증에서도 우수한 재현성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발표된 수면내시경 자동 판독 연구 중 최대 규모의 다기관·외부 검증 연구로 평가받는다.

김진엽 교수는 “인공지능으로 판독의 객관성과 재현성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의료 AI를 실제 임상에 적용하는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BRIC ‘한빛사(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에 등재됐으며, 김진엽 교수의 세 번째 등재다.



2026년 카자흐스탄 국제관광 박람회 및 한국 의료 상담회 참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2026 카자흐스탄 국제관광 박람회(KITF 2026)’에 참가해 한국 의료 기술 홍보 활동을 펼쳤다.

카자흐스탄 국제관광 박람회는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 관광산업 행사로, 올해 24회째를 맞아 알마티 Atakent 전시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관광공사와 경기도 지원 아래 국내 의료기관 및 관련 업체 약 30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가했다. 병원은 현장 부스를 운영하며 외국인 환자 유치 상담과 의료 홍보를 진행했다. 특히 ZAP-X 방사선수술과 다빈치 로봇수술, 종합건강검진 프로그램 등에 현지 방문객들의 관심이 높았다.

이어 25일에는 카자흐스탄 서부 우랄스크에서 고양시 소재 의료기관들과 함께 한국 의료 상담회를 열고 현지 유력인사 등을 대상으로 의료 상담을 진행했다.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참여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5월 16일과 17일 양일간,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연등회’에 참여했다. 16일 열린 연등 행렬에는 백용해 병원장, 김동일 한방병원장, 지도법사 능지스님, 교직원 불자회 광범석 연우회장 및 교직원 등이 행렬에 동참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했다. 이어 17일에는 조계사 앞 우정국로 일대에서 펼쳐진 전통문화마당에 참여해 부스를 운영하며 의료지원, 기금 모연 및 병원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날 부스를 찾은 많은 불자와 스님들은 병원의 활동을 격려하며, 기금 모연에도 뜻을 함께했다.



해인사 자비원·광명노인요양원 위문, 의약품 공양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자비원과 광명 노인요양원에서 위문 행사가 열렸다. 이날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비구니스님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한방 파스 10박스를 전달했다.

행사에는 총무원장 진우스님,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용스님을 비롯한 전국비구니회 임원스님들과 해인사 자비원·광명노인요양원 비구니스님 50여 명, 그리고 해인사 주지스님이 함께 자리했다.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용스님은 “동국대일산병원의 의약품 공양 정성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명숙 대외협력홍보팀장은 전달식에 참석해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교직원들의 의약품 공양 취지와 의미를 전하며, 불교 종립병원으로서 비구니스님들의 노후 복지 현장과 함께하는 나눔의 가치를 공유했다.



충북 음성 미타사, ‘땅 한 평의 원력’ 신관건립기금 1억 원 보시 ‘자비의 의료불사 원만회향 발원’

충북 음성 미타사는 사부대중의 정성과 원력을 모아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관건립기금 ‘땅 한 평의 원력’ 불사에 1억 원을 보시하며 자비의 의료 불사 원만회향을 발원했다.

이번 기부는 주지 회원스님의 간절한 원력과 사부대중의 발원 속에 이루어진 뜻깊은 동참으로, 회원스님은 ‘땅 한 평 불사가 생명을 살리는 자비의 불사’라는 마음으로 신관건립불사에 깊은 관심과 응원을 이어 오고 있다. 미타사 사부대중은 의료불사 동참 확산을 발원하며 정성을 보냈고, 작은 마음 한 평이 큰 공덕으로 이어져 우리 모두의 병원을 세우는 원력이 되기를 기원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관건립불사는 불교계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의료도량 조성 불사로, 이번 동참은 자비와 의료가 하나로 이어지는 의미를 더하고 있다.

